



발행인 정우식 / 발행일 2024년 12월 12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24년
12월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퇴직 교사들 지역교육 현장으로 가다



문 채 병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원과 진안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우리 문화원의 퇴직 교사 교육봉사단 교사 4명은 지난 6월부터 진안군 학교 밖 늘봄기관 ‘안전아동놀이터’에서 초등학생 3명과 함께 국어·수학 학습지도를 주 1회씩 7개월째 교육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 봉사! 전북 교육 봉사 역사를 우리 문화원과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반추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전북청소년독서캠프’를 효시로 꼽고 싶습니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때 국가보조금 지원 없이 교사들의 열정 하나로 10여 년 동안 진행한 전국 최초의 초·중·고 현직교사와 어린이·청소년이 함께한 체계적인 독서캠프였습니다. 이후 독서교육은 전북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은 시대적, 철학적 배경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독서캠프나 진안 교육 봉사도 사회와 교육의 필요에서 잉태된 시대적 산물입니다. 철학적 바탕은 ‘교육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자라는 용어를 두고 입장 차가 아직껏 여전합니다. 흔히, 교육이 노동을 수식하는 관계, 노동을 교육보다 상위 주종관계로 단순도식화한 오류가 노동 통일성 깃발 아래 획일화하고 협소·경직화로 내모는 자승자박으로 정체성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근본(根本)에 힘을 써야 도(道)가 생(生)기는 법입니다. 교사에게 교육 활동 없이는 노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육 활동이라는 근본(本)을 통해 노동이 발현(道生)된다는 입장이 백번 옳습니다. 언론노동자는 공정 보도(本)를 통해 노동이 현실화(道生)하고, 의료노동자는 의료행위(本)를 통해 노동이 구체화(道生)합니다. 선후와 경중은 분명합니다. 각기 근본에 충실함으로써 전체 노동 대의가 다양하고 풍부해지면서 총화라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단화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노동의 신성성을 모독하는 모욕이고 모순당착이 됩니다. 교사를 교사이게 하고, 노동자이게 하는 본질은 교육 활동에 있습니다.

독서캠프에 이어 다시 교육 봉사활동으로 마을 교육을 찾아갑니다. 세상 이러저러한 실정이나 형편에 아랑곳없이 꺾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물정 모르듯 뚜벅뚜벅 갑니다.

교육 봉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고민과 질문이 다가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각별한 흥미를 더해줍니다.

현직 때 굴레로 작동했던 잡다한 행정과 규제는 사라지고 순수 자연상태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감은 교학상장(敎學相長)을 넘어 원초적 교육, 그 청정함까지 누립니다.

2024년 12월

글 실는 순서

표지 : 2024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 순례

- 02 인사말 - 문채병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장
- 03 제12차 교육정책세미나
- 04 2024 여름 워크숍
- 05 진안 안천면 교육 봉사활동 꾸준히 진행
- 06 퇴직 교사 교육봉사단

- 07 2024 평화와 만나는 평화순례길 2
- 09 예수대학교 특강: 업무협약 첫 실천 사업
- 10 2024 하반기 회원 만남의 날
전병관 회원, ‘핸드프린팅’ 작품 제작 기증, 제66차 이사회
- 11 각종 지역교육협력 활동 / 현장탐방
- 14 [연대 활동 / 회원 동정]
- 16 신입회원 환영·신입회원 모집 / 겨울학교

교육정책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주제 :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방안’

우리 문화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주관한 ‘제12차 교육정책세미나’가 11월 5일(화)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60여 명의 민·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지자체-교육청-대학-학교-마을-민간단체의 전북형 민관학 교육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부에 정우식 이사장의 개회 인사, 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제2부 세미나에서는 이미영 대표의 사회로 주제 발제와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교육 시민단체, 마을 교육 활동가, 교육장, 장학사, 도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분들이 참석하였다.

주제 발제를 맡은 강충서 교수는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시민사회의 지역교육 활성화에 대한 중심적 입장이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교육의 사회적 목표와 교육적 목표의 균형 잡힌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역교육의 필요성으로 중앙 정부 중심 정책의 한계, 지방 교육자치의 전환, 인구 감소와 교육의 위기를 들었다. 지방자치 교육은 지역별 고유성, 전문성, 현장 지원, 지역생태계 활성화, 거버넌스 등이 구축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현실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는 민관학의 체계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진행 :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주제 발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방안과 과제 • 강충서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발표 1	도-도교육청-대학의 연계 협력방안 • 이현근 교육협력관(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
발표 2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 허대중 센터장(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발표 3	지역소멸위기, 농촌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설경열 부위원장(도교육청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

다음 발표에서, ▶이현근 교육협력관은, 도-교육청-대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교육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의회의 법규 마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대중 센터장은, 마을배움터인 ‘전주다움배움터’와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역교육공동체 회복 운동과 지역 성장운동 차원으로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설경열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농촌 지역에서 마을 교육 활성화가 학교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 제시하고, 사업 중심 기관 운영으로 인한 마을 교육 인프라 구축 미흡, 체험과 일회성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어 중등 이상 청소년들



이 마을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진단하며 지역에서 마을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 거점기관(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영 대표는 “내년부터는 시작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에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자율교과, 고교학점제)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중·고생용 지역 교과서 제작과 더불어 정기적인 지역교육정책포럼 개최, 지역연계 교육은 초등 중심에서 중등으로 확대,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확산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김희수** 부의장은 “세미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협력 활동에 동참,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과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다짐하였다.



2024 여름 워크숍 열려

— 주제 : ‘지역교육협력과 우리 문화원 활성화’ —

우리 문화원 2024 여름 워크숍이 8월 31일(토) 오후 3시~7시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열렸다. 워크숍 주제는 ‘지역교육협력과 우리 문화원 활성화’로, 30여 참가 회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송승용** 진안 교육장은 ‘지역교육 협력사례’ 발표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교육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모습을 소개해줘 인상적이었고, “소멸해 가는 진안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위기의식과 협동심이 중요하다.” 교육 가족은 물론, 지자체, 지역교육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영** 대표는 2022년 도청 조직에 신설된 ‘교육협력추진단’의 설치 과정과 공동과제를 설명하고,

2024 여름 회원 워크숍

“지역교육협력과 우리 문화원 활성화”

• 2024. 8. 31(토) 오후 3시 • 청동북카페 세미나실(2층)



• 진행 : 임동연 정책실장

1. 지역교육협력 사례: 진안지역을 중심으로
- 송승용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2.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3. 상반기 활동 보고 / 하반기 사업계획 공유
- 정우식 이사장
4.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활성화 제언
- 임동연 정책실장

[총합토의]
• 지역교육협력과 우리 문화원 활성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도교육청-대학 상설기구로서 교육협력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전북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도와 각 시·군 교육협력지구 조례 제정', '교육협력지구사업과 진로진학교육을 융합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우식 이사장은 상반기 기초학력 지원 퇴직 교사 교육봉사단 발대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원 사업을 소개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회원의 단결과 단합을 위한 '회원 만남의 날, 평화길 순례, 교육정책 세미나, 향토역사 걷기 소모임 활동' 등을 지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끝으로 임동연 정책실장은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회원 증가 운동을 제안하였고, 참석한 신진규 회원은 회원모집에 노력한 회원에게 자신의 목공 작품을 선물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참석자들의 웃음꽃을 자아냈다.



진안 안천면 교육 봉사활동 꾸준히 진행



우리 문화원 퇴직 교사 교육봉사단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해온 진안군 안천면 교육 봉사활동을 매주 월요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봉사는 정은숙 단장을 비롯하여 문채병 선생님, 조경희 선생님, 권윤아 선생님 등 퇴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경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학습하며 호응해주는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안천면 교육 봉사활동은 지난 3월 우리 문화원과 진안교육지원청이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는 사업이다.

퇴직 교사 교육봉사단

- 청소년들과 평화 걷기 상담 활동하기로 -

지난 9월 3일(화) 오후 2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우리 문화원 퇴직 교사 교육봉사단(단장 정은숙)과 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현정)는 위기 청소년 상담 활동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단체는 이 모임에서 청소년 상담 수행 과제를 정하고,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봉사단은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 순례길을 같이 걸으며 평화 감수성 향상 및 성취감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봉사단 - 평화 걷기 상담 전주 답사

답사 경로 : 다가공원 주차장-충혼탑-엠마오 병원-용머리고개-용두봉-완산칠봉 녹두관-완산도서관-한옥마을(점심)-향교 앞 갤러리(김대중 수목화전)

우리 문화원 '평화 걷기 상담 교육봉사단' 6명은 9월 10일(화) 9시 30분부터, 신희섭 선생님(신흥고 퇴직)의 안내로 평화 걷기 상담 코스를 사전 답사했다. 신희섭 선생은 올해 전주 YMCA와 함께 전주 평화 순례길을 조성하고 있다. 신 선생님은 다가공원 주차장에서 전라감영 쪽을 바라보며 동학혁명군 전주 성 무혈입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1919년 3월 13일 남부시장 장날에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이 다가교를 건너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했던 그림도 그려진다. 다가교 귀퉁이 신사모형을 지나 다가산 충혼탑(신사가 있던 곳)을 오르며 나라를 빼앗긴 민초들의 심정을 되새겨보았다. 일제식 충혼탑에 답답함을 느끼며 내려갔다.



용머리고개 지나 도로 건너 완산칠봉 접어드는 용두봉을 향했다. 용두봉을 내려와 '녹두관'으로 향했다. 완산칠봉 철쭉 꽃동산 부근에 자리한 녹두관은 처음이라는 선생님도 있었다. 녹두관에는 무명 동학농민

군 지도자 묘가 있다. 1894년 처형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는 일제가 유출한 뒤, 1995년 북해도대학 표본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1996년 국내로 봉환하였다. 참으로 멀고 긴 시간을 지나, 이곳에 안치된 무명지도자 묘에 묵념을 올렸다.

답사 후 한옥마을에서 먹은 점심 콩국수, 향교 앞 갤러리에서 감상한 탄생 100주년 기념 김대중 수목화전은 몸과 마음을 넉넉히 채워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



2024 평화와 만나는 평화 순례길 2

— 산 · 들 · 강 · 사람의 땅 김제-부안 편 —

답사 경로 : 김제 [정화암 선생 - 아리랑 문학관 - 아리랑문학마을 - 하시모토 농장사무소] - 동진강휴게소(점심) - 부안 [서림공원(매창 시비) - 청구원(신석정 고택) - 신석정 문학관]

10월 9일 한글날, 김제-부안지역으로 우리 문화원 평화 순례길 기행을 다녀왔다.

김제, 부안지역 순례길은 푸른 하늘 아래 황금 들녘과 아름다운 코스모스꽃이 함께 해주었으니 더없이 평화로운 하루였다.

김제에서는 독립운동가 화암 **정현섭** 선생(1896~1981) 생가가 있는 장화마을을 지나며 선생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보았다. 정우식 이사장은 정화암 선생이 집안 어른이셔서 어릴 적 세배드린 기억이 있다며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까지 세세히 들려주며 안내를 맡았다. 정화암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하고, 중국으로 망명, 이회영, 신채호 등과 교류하며 무력투쟁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 아나키스트이다. 1933년 의열단과 같은 상해해방연맹을 이강훈, 백정기 등과 결성하고 임시정부, 광복군의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민주화 운동가로 사신 김제 출신 정화암 선생을 이제야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 부끄러울 뿐이다.



다음으로 아리랑 문학관을 찾아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무대인 김제 땅을 더듬었다. 『아리랑』은 일제 치하 김제지역 민중과 동포들이 겪은 수난과 저항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쓰는 데만 4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4년 8개월은 그냥 쓴 날만 그렇고,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는 것까지 하면, 태백산맥을 쓴 기간까지 하면 15년이 걸렸다”고 한다. 문학관에는 아

리랑을 쓰기 위해 지구 세바퀴 반이나 되는 답사로 자료 조사한 발로 쓴 취재 수첩과 스케치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작가의 피나는 집필 과정을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었다.

문학관 앞마당 한쪽에 있는 ‘청해진 유민 벽골군 이주 기념탑’ 앞에서 김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대 이주의 역사를 들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권을 장악하는 등 국제무역을 주도하자, 백성의 우상이 되어버린 장보고와 청해진 세력을 두려워한 중앙 정부는 장보고를 암살(841년)하고 851년 청해진과 인근 주민 10만여 명을 김제 땅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 역사 속에서 한·중·일 해상권을 주름잡던 해상왕국의 기상이 김제 땅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아리랑문학마을이다. 이곳에는 소설 속 마을과 거리, 만주 하얼빈역과 안중근 의사의 의거 상황을 재현해 놓았다. 일행은 안중근



의사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날의 충성을 기억해보았다.

다음으로 김제시 죽산면 구 일본인 농장사무소, 하시모토 농장사무소를 찾았다. 현지 안내문에 의하면, 하시모토는 1906년 군산에 들어왔으며 1911년 동진강 일대 서포리 개간지를 불하받아 죽산으로 이주, 1916년부터 농장경영을 시작하며 수탈을 일삼은 자다.



하시모토 농장사무소를 나와 점심을 하러 새롭게 단장한 구 동진강휴게소 식당에 들렀다. 2층 전망대에 오르니 유장하게 흐르고 있는 동진강 모습이 평화로웠다.

오후는 부안지역으로 신석정 시인과 이매창을 찾아가는 일이다. 우리 일행은 먼저 두 시인의 숨결이 어려 있는 서림공원에 올랐다. 서봉 정상에 있는 정자에서 바라보는 부안 황금빛 들판과 계화도, 저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석정 시인도 “서림공원은 내 젊은 꿈이 한 그루 한 그루에 새겨진 유일한 산책의 길이었다.”고 회고하였다고 한다.



정자에 앉아 부안 지역교육에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명희** 선생님(계화중)이 신석정 시인의 삶과 시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부안에서 태어난 시인이 보통학교 시절 동맹휴학을 일으켜 무기정학에 처해 졌다는 이야기,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부안문화연구회’ 활동을 한 이야기, 1946년 부안중학교 개교에 힘을 보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인은 1949년 부안중 국어교사를 시작으로 전주교, 김제교, 전주상고 등에서 20여 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분이어서 더 정겹다.

이어서 **김영춘** 시인은 신석정 시인 가족사를 통해 시인의 시 세계는 목가적일 수만은 없었다며, 시대를 아프게 살다간 시인의 삶과 시를 조명해주었다. 시인의 삶 속에서 박한영 스님, 가람 이병기 선생, 춘헌 이영일, 언론인 이익상 등 인물과 관련된 얘기도 흥미진진하였다.



다음으로 서림공원 입구 쪽에 자리한 매창 시비에 도착했다. 시비에는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매창의 시와 무덤에 함께 묻었다는 거문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이 시는 1592년 20살 무렵, 연인 춘은 유희경을 그리워하며 쓴 시로 유명하다. 노래를 잘하고 거문고를 잘 타며 시에 능한 매창은 당대 문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부안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허균과의 10년에 걸친 우정은 유명하다. 정신적 사랑을 나누었던 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허균은 ‘계랑(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라는 시를 남겼다.

평생 부안을 떠나지 않은 매창은 38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죽은 지 45년 만에 묘비가 세워지고, 1668년 부안 아전들이 수많은 시 중 54편을 모아 개암사에서 ‘매창집’을 발간하였다. 이매창의 묘(지방기념물 제65호)는 부안을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석정 시인의 고택 ‘청구원’으로 향했다. 청구원은 4칸 아담한 초가집으로, 시인이 1952년 전주로 이사하기까지 살던 고택으로 신석정 문학관 앞에 있다. 앞마당엔 꽃과 나무를 무척 사랑했던 시인이 가꾼 온갖 나무와 우거진 시누대 받이 있었다고 한다. 전주 집 ‘비사벌초사’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청구원 뜰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간다. 일행은 청구원 마루에 앉아, 가난했지만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참다운 생활을 한 절정의 시기라고 했다는 시인의 말을 곱씹으며 시를 낭송해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석정문학관을 돌아보고, 문학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한글날! 조정래, 신석정 두 작가를 다시 만나서 행복했던 하루였다.



예수대학교 특강 : 업무협약 첫 실천 사업

– 정우식 이사장, 교직원 학생 대상 –

지난 7월, 우리 문화원과 예수대학교가 업무협약을 맺고[사진], 예수대 교직원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교육 봉사 등에 관한 교류 협력과 전북지역 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첫 협력사업으로, 교직원 학생 대상의 특강을 우리 문화원이 지원하였다.

강사로 나선 정우식 이사장은 특강에서, 차별 감수성과 평화 감수성을 강조한 뒤, 우리 문화원의 ‘평화·통일 교육 실천사례’와 ‘중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평화·통일 교육’ 등을 소개하였다.



참 따뜻했던 시간, 2024 하반기 ‘회원 만남의 날’

우리 문화원은 9월 25일(수) 오후 6시, 라이브카페 ‘공감’에서 ‘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모임에는 40여 회원들이 참여하여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대학가요제 출신 회원인 **이병주** 선생님과 동료들의 기타연주와 7080 노래공연은 감동과 울림의 시간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회원들은 조각가로 활동하는 **전병관** 회원이 준비해온 ‘핸드프린팅’ 작업에 참여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전병관 회원, ‘핸드프린팅’ 작품 제작 기증

우리 문화원 **전병관** 회원(성암아트홀 관장)이, 9월 25일(수) 문화원 ‘회원 만남의 날’에 점토를 가져와 작업한 ‘핸드프린팅’ 작품을 석고로 제작해서 우리 문화원에 기증하였다.

전병관 관장은 임실군 신덕면에 ‘오궁리미술촌’을 조성하여 젊은 작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끌었던 전북의 대표적인 돌 조각가이자, 예술교육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예술가 창작 공간 오궁리미술촌 창작 스튜디오 촌장(오궁리미술촌 관장)으로, 공동화되던 농촌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미술공동체 건설을 주도하여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사)오궁문화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고, 전주시 동문사거리에서 전병관 Edu&Art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66차 이사회 개최



우리 문화원 제66차 이사회가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 본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정우식** 이사장의 인사, 참석 이사와 감사의 근황 보고 등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주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김명희** 이사는 ‘내년은 우리 문화원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니까 기념식을 잘 준비하자고 제안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사회를 마쳤다.

【편집자 주】 지역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은 우리 문화원의 주된 사업 목적과 방향의 하나이다. 직접 주관·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수많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연대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다양한 지역교육 활동과 현장탐방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순창교육정책포럼’

— 주제: 농촌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미래 교육 —



11월 28일(목) 2시,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순창교육정책포럼’에서 이미영 대표는 ‘농촌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 발제를 하였다. 발제에서 “농촌학교는 미래 교육이 요구하는 역량 핵심 교육조건이 충분하며,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으로 농촌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순창교육 발전방안으로 ▶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순창지역교육포럼 정

례화 ▶중간지원조직(가칭 순창교육협력센터) 구축 ▶지역 특색을 살린 특성화고(특성화학과) 신설 ▶지역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학교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

이 자리에는 교육장, 장학사, 순창지역 학부모, 마을 교육 활동가, 교원,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순창 지역교육 활성화에 관한 대책을 모색하며 활발하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교육정책포럼 개최

— 송승용 진안 교육장 개회 인사 —

10월 23일(수) 오후 2시, 진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과 함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진안교육정책포럼’이 열렸다. 60여 명의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기관-학교-마을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안교육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개회 인사에서 송승용 교육장은, “학교와 마을은 진안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을 함께 성장시키고, 마을의 배움터를 확장해 나가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열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진안교육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영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을 좌장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황영모 선임연구원(전북연구원)은 지역과 함께 진안 학교를 살릴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농촌 재생 관점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높은 수준의 농촌교육 실행을 주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



발표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네트워크로 진안 아이들의 지역 교육과 돌봄을 실천해올 수 있었다며,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 협력을 요청하였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제언이 이어져 진안교육 발전에 향한 지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진안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모임을 준비하기로 약속하고 마쳤다.



2024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 - ‘한국과 중국 농어촌교육의 변화와 전망’ 참석 -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전주대 진리관 성현홀에서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와 전주대 사범대가 주관하여, ‘한국과 농어촌교육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24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에 우리 문화원 정우식 이사장, 이미영 대표, 이현근 교육협력관이 참가하였다.

세미나를 총괄 주관한 유평수 교수(전주대 교육학과, 한국교육학회 전북지회장)는 축사에 서 “한국과 중국의 교육 현실과 전망을 함께 고찰하고 양국의 교육 발전과 전망을 내오는 데 시사점을 얻자.”라고 했다. 김보경 교수(전주대), 이은정 장학사(진안교육지원청)의 발제와 김경현(원광대), 강충서 교수(전북대)의 토론,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장위 부소장, 리남 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한국의 디지털 교육 전망뿐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화 변혁 과정을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한국 농촌 현실에 대한 정책 대응과 중국 농촌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완주교육한마당’, ‘전주교육나눔한마당’



10월 31일(목), 이미영 대표(지역과 함께 특별 자문위원장)는 교육협력과 관계자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지역과 함께 아이들과 실천하고 체험한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완주교육한마당(삼레 꿈이공)’, ‘전주교육나눔한마당(전주교육지원청 마당)’을 방문하였다.

‘완주교육한마당’은 이틀(10.30~31) 동안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을, 11월 1~8일에는 교육공동체 수업 사례발표, 학술문화행사를

열었다. 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위센터 등 각 센터 부스와 완주 관내 고교들의 안내 부스가 설치되었다. ‘완주창의예술미래공간 꿈이공’ 공간을 둘러본 뒤, 교육장, 장학사, 교사들과 함께 행사준비와 민·관·학 협력사업 얘기를 나누었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활동 지



원정책을 생각해 보았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전주교육나눔한마당’은 ‘마을과 학교, 아동·소년과 부모,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교육지원청 마당에서 열렸다. 허대중 센터장(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의 안내로 전시, 체험 부스를 꼼꼼히 둘러보며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기후위기 환경 관련 폐품을 활용한 작품, 에너지 절약 교육내용이 많았다. 교육 마당에서 교육장, 은혁기(전주교대) 교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

순천마을교육공동체 탐방



답사 경로 : 순천 저전나눔터 – 저전마을 투어 –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사무 공간(순천남초등 별관) – 점심 – 조곡동 우리마을연구소 – 철도문화마을 투어

이미영 대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는 10월 25일(금) 오전 8시~오후 6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탐방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들과 도내 각 시·군 마을 강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답사를 통해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 주민들의 마을 재생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연계,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과 마을연계 교육과정 개발, 마을-학교를 이어 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센터) 등이 결합하여 순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사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전북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로 확인]

이미영 대표, 지역교육 인터뷰 기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날로 커지는 지역교육의 중요성...지자체와 지방의회 관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어린이집 정책 세미나 참관

9월 5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정책 세미나에 우리 문화원에서 정우식 이사장, 이미영 대표, 이현근 교육협력관이 참관하였다.



중학생용 지역교육 교재, 김규남 박사 대표 집필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율시간에 학교 선택교과로 사용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 중학생용 워크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제작에 우리 문화원, 김규남 박사(전북지역학연구소 이사장)가 책임연구원 겸 집필자로, 김명희(계화중 교사), 양경자(남원한빛중 교사), 정우식(본원 이사장), 허대중(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등 회원이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교재는 제작되어 도교육청 제출 예정이며,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김규남 박사는 “중학생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지역여행이 되어 전북에 대한 자긍심과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교재 집필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 문화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내년 1월 초부터 회원과 교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교재를 학습하는 ‘2025 겨울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뒤표지 겨울학교 소식 참조]



회원 다수 참여 ‘녹두꽃’ 시민합창단 첫 정기연주회

지난 11월 9일 오후 5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녹두꽃’ 시민합창단의 제1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연주회는, 친숙한 곡들도 많이 선곡되어 객석을 꽉 채운 청중들이 따라부르는 등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녹두꽃’에서는 합창단장인 우리 문화원 이광철 고문을 비롯하여 고은하, 김찬영, 심인영, 오미숙, 정우식, 정은숙, 최경애 회원 등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



이미영 대표, 교육민주화운동 구술작업 참여

이미영 대표는 지난 8월 9일,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민주화운동 구술 조사 작업에 참여했다.

구술은 이미영 대표가 활동했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교육 소모임, 전주YMCA교사회 창립과 해직, 전교조 창립과 활동, 농촌학교살리기운동,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활동 등 전북지역의 교육 운동사 전반에 걸쳐 4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미영 대표는 “오래전 기억을 소환해서 얘기하느라 땀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같다. 교육 운동사를 얘기하면서 역사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했다.

구술작업 결과는 영상과 자료로 정리되어 ‘민주화운동 역사 사료관’에 남는다고 한다.



허대중 회원, ‘인물대상’ 수상, 『미라클 스토리』 출간



허대중 회원(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12월 6일,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인물 대상’ 청소년인재양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최근 사색과 성찰의 책 『미라클 스토리』(신아출판사)를 출간했다. 2010년부터 ‘꿈이룸터’와 ‘(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을 찾아 주고, 꿈을 지원하며 응원하는 일을 해왔다. 현재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마을교육공동체 ‘별별마당’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대중)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별별마당’ 프로그램을 11월 21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주마을교육공동체 권역별 ‘별별마당’은, 학교 밖 돌봄과 전주마을교육공동체 79곳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신미숙(교사) 김향춘(교사) 김요셉(교사) 최동희(교사) 최현정(교사) 김옥주(교사) 오미숙(시민)
박자경(전북연구원) 은일영(퇴직 교사) 박대근(퇴직 교사) 이병주(퇴직 교사) 정대승(자영업)
이현미(청동북카페) 김경심(사회복지사) 박현정(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대영(의사)
안이순(덕진청소년센터장) 장준(시민) 장소연(시민) 김미현(교육공무원) 강충서(전북대 교수)
조준상(시민) 배선수(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무순

[신입회원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의 : 063/905-0218, 010-2050-0650

후원 전북은행 543-13-031086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25 겨울학교 개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우리 문화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 워크북(중학생용)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집필진의 교재 강의를 통해, 회원과 교원을 연수하고, ▶학교와 마을 현장에서 지역교육 수업 방법을 제시하며, ▶교원과 회원,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고취하여 전북 지역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5 지역교육 겨울학교를 개설한다. 겨울학교는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 ▶주제: 지역교육 겨울학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 ▶일시: 2025. 1.8(수) ~ 2.19(수)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총 6회)
- ▶장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 ▶참가대상: 회원, 교원, 지역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참가신청: 12월 27일(금)까지 ☎ 010-2602-6289 [이미영]으로 접수
- ▶주관: 전북지역교육연구소 / 주최: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겨울학교 일정표

▶ 교장: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강의	일정	강사	강의 주제
1강	1.8(수) 3시	정우식 이사장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 풀꽃·나무·곤충과 함께 스스로 성장하는 나
2강	1.15(수) 3시	양경자 선생님	우리(청소년)가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
3강	1.22(수) 3시	김명희 선생님	우리 지역에서 더 잘 살아가기 / 전북의 명소
4강	2.5(수) 3시	김규남 박사	전북, 전북의 시·군 / 전북의 산과 강 / 말
5강	2.12(수) 3시	최명표 박사	전북의 인물
6강	2.19(수) 3시	허대중 센터장	전북의 브랜드 / 축제 / 직업
답사	3.1(토)		지역 답사